

'무등산 골칫거리' 흑염소 3년째 출몰

올해 5~7월 중머리재에 흑염소 10여 마리 출몰 신고 2건 흑염소 지난해 12마리 포획...인근 목장서 나와 번식 추정



지난해 6월 무등산국립공원 중머리재에 출몰한 흑염소 무리.

무등산국립공원의 골칫거리 주연인 흑염소가 또다시 나타났다. 3년째 출몰하는 흑염소 무리는 식별 번호가 없어 주인을 찾지 못해 무등산 곳곳을 누비고 있어 완전한 포획도 어려운 실정이다. 25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중머리재(해발 617m) 인근에서 '흑염소 무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2건 접수됐다.

흑염소 10여 마리는 주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중머리재에서 목격되고 있다. 흑염소 무리는 등산객이 남긴 음식이나 풀을 뜯어먹은 뒤 탐방로 인근에 배변 활동을 한다. 짝 냄새를 맡고 화장실 시설물을 훑거나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한다. 현재까지 흑염소 공격에 따른 부상자나 시설물 파손 사례는 없다. 다만 일부 등산객들이 탐방로에 갑자기 출몰한 흑염소를 보고 놀라는 정도다. 흑염소는 2020년 11월 용추계곡 인근에서 2마리가 첫 발견된 이후 산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들 무리는 화순 수만리~용추계곡~중머리재~새인봉을 넘나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흑염소는 공원 내 자생종이 아니다. 몇 해 전 무등산과 맞닿아있는 인근 목장에서 나와 번식한 것으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소유주가 불분명해 흑염소

방목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정확한 서식 개체 수를 알 수 없어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출몰할 가능성이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모니터링을 거쳐 포획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중머리재에서 흑염소 12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흑염소는 소처럼 축산물이력제 대상이 아닌 탓에 식별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소유주를 찾기 어렵다"며 "이동 동선이 넓게 분포해 정확한 서식지나 개체 수 파악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용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교수는 "무등산은 많은 암벽과 풍부한 풀이 있어 흑염소에게 최적의 서식지"라며 "흑염소는 2년 동안 3차례 왕성한 번식을 하는 종이라 산에 서식터를 잡았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가족 방목은 처벌 대상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가족을 무단으로 놓아 먹이는 행위는 정역 2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환기자



완도해양경찰, 국민 친화소통 공간으로 거듭나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가 대국민 소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외부 공개공간을 지역주민 휴식공간인 '리틀 포레스트(Little Four:rest)'로 탈바꿈 시켰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관내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덤พ์-추레라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강진경찰, 자율방범대 운영 법률 제정 협력강화 및 재정적 지원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20일 강진군 아트홀 소공연장에 열린 제 11-12대 자율방범연합회창립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소방 생활안전순찰대, 장마대비 예방활동 실시

장흥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는 8월 장마기간을 대비하여 집중호우 시 빈번히 발생하는 침수·감전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펼쳤고 14일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무안소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갯벌사고 인명구조훈련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최근 홀통해수욕장(무안군 현경면) 및 주변 갯벌지역에서 갯벌 고립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전남병무청,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마음토크' 진행

광주전남병무청(청장 최규석)은 지난 20일 병역진료정보실에서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한마음토크' 행사를 진행하였다. 최이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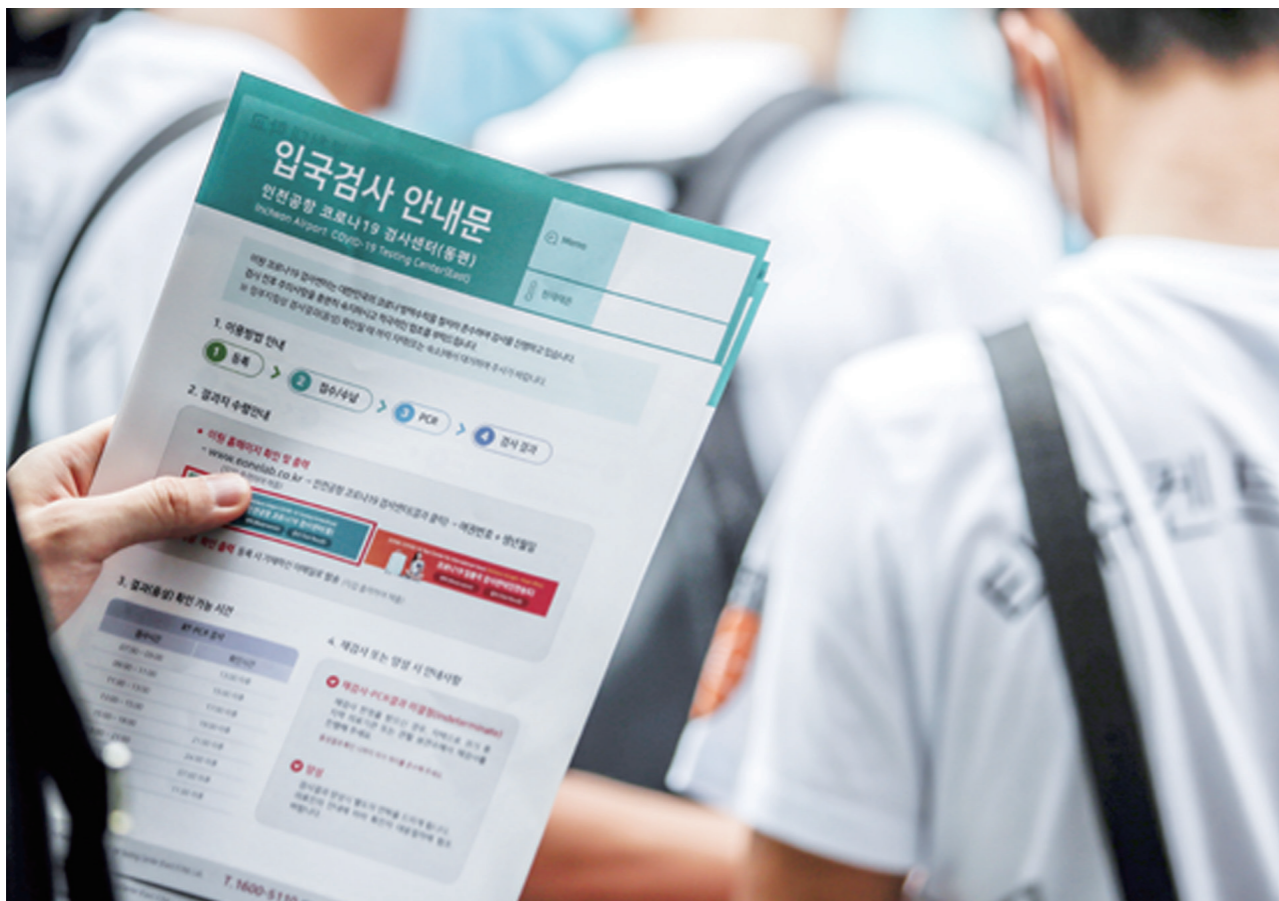
가상화폐 투자금 꿀꺫...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대표 실형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3명에게 채굴기 50

대를 대당 145만 원에 판매한 뒤 위탁받아 관리해왔다. 가상화폐 채굴에 따른 수익금을 지불하고 요청 시 열흘 이내에 채굴기를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채굴기를 반환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의 회사에 다니던 직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43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횡령한 금액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승호기자



오늘부터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여행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5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연례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하는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두 달만에 다시 강화됐다.

광주 사찰·아파트서 잇단 화재...인명피해 없어

무등산 자락의 한 사찰과 도심 아파트에서 잇따라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모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23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7분께 동구 윤림동 모사찰 한옥식 건물 내부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차 13대와 소방대원 30여 명이 출동, 인근 건물로의 확산을 막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10여 분만에 초기 진화됐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7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소방당국은 아궁이 쪽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새벽 2시13분께 광주 광

산구 한 영구임대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119는 현장에서 총선 중이던 전동키보드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슬비기자

나주시 미화원 채용 대가로 뇌물수수 공무원, 2심도 실형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5·여)씨와 A씨 친인척 B(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 3개월·추징금 1000만 원을,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2020년 5월 브로커 C(43)씨로부터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쟁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미화원 응시자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B씨를 만나 청탁 대가로 채무 2000만 원을 면제해줬다. C씨는 공무원 A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 실제 면접시험 전 A씨의 청탁으로 C씨가 부당한 특정 미화원 응시자가 합격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다만 A씨가 C씨에게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송준표기자